

보도자료

2022년 2월 17일(목)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영기획본부 ESG확산팀 팀장 신태영 (061) 350-1391
경영기획본부 ESG확산팀 과장 서혜련 (061) 350-1392

“KCA, 전국 최초 특수학교 대상 순환자원 회수로봇 도입”

- 혁신도시 4개 공공기관과 소셜벤처 ‘수퍼빈’ 협업
- 16일, 전남 나주 이화학교와 함평 영화학교 대상 추진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전국 최초로 특수학교 대상 순환자원교육 ‘수퍼루키 서비스’를 전남지역 2개교에 시범 도입했다. 지난 16일 순환자원 회수로봇 설치까지 완료했다.
 - 이번 사업은 혁신도시 4개* 공공기관과 소셜벤처 ‘수퍼빈**’ 협력으로 전남 나주 이화학교와 함평 영화학교 2개교 대상으로 추진한다.
 - *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농어촌공사(KRC)-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P)
 - ** 순환자원을 회수, 선별, 소재화 하는 사업과 재활용에 대한 문화콘텐츠 기획·공급하는 소셜벤처
- 수퍼루키 서비스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재활용 방법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 사업으로, 학교별 순환자원 회수로봇 설치 및 온·오프라인 환경 교육을 진행한다.
 - 회수로봇에 캔·PET를 넣으면 AI기술기반으로 자동 분류하여 수거하고, 참여 학생에게 ‘씨앗’ 리워드 보상을 통해 재활용에 대한 동기와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 이밖에 오프닝 행사, 자원순환교육(PET의 재활용 여정), 스쿨런(랜선 줍깅), 영상제 등 다양한 교육 및 참여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 KCA 정한근 원장은 “KCA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환경 이슈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자원순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1 설명) KCA와 수퍼빈은 지난 16일 나주 이화학교에서 순환자원 회수로봇을 설치하고 페트병을 투입하고 있다.

(사진2 설명) KCA와 수퍼빈은 지난 16일 나주 이화학교에서 순환자원 회수로봇을 설치하고 기기 테스트를 하고 있다.



사진1



사진2